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부관계 유형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J' shape. The left side of the 'J' is composed of three curved, flame-like shapes in blue, green, and grey. The right side is a solid purple vertical bar. In the center of the 'J', there is a small icon of an open book above the text 'JEJU 1952'. The entire logo is surrounded by a faint, circular watermark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in Korea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은 비

2009년 8월

부부관계 유형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고 은 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고은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9년 8월

<국문초록>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고 은 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연구¹⁾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가 있는지,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근원들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 그리고 부부관계 유형과 사회적 지지근원에 따라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1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써 피해수준은 Straus(1996)가 개발하였고 손정영(1997)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수정·보완된 피해수준 척도(CTS2)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 < 0.05$, $p < 0.01$, $p < 0.001$ 수준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배경변인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차이 검증에는 t-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고,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을 알아보기

1)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그리고 부부관계유형과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른 피해 수준과 사회적 지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피해수준이 낮은 양상의 양 변인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의미있게 나타난 결과로는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완충효과로서 심리적 피해수준이 낮은 $p < 0.001$ 수준의 높은 부적 상관으로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그 피해수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약한 폭력은 기본으로 경험했으며, 평균폭력인 3-5회 이상인 심각한 폭력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4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정도는 총점 5점 기준으로 평균 3.70점(표준편차 .51)으로 '거의 그렇다'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평가적지지 > 정보적지지 > 정서적 지지 > 물질적 지지 순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별로 도움을 받는 근원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는 근원간 차이가 없고, 정보적 지지는 사회 > 가족 > 친구 > 이웃 순서로, 물질적 지지는 가족 > 친구 > 사회 > 이웃의 순서로, 평가적 지지는 사회 > 가족 > 친구 > 이웃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은 이웃이 사회적 지지 근원으로서 역할이나 영향은 미미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사회적 지지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 > 사회 > 친구 > 이웃 순서로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혼소송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적 피해수준과 상해 피해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부관계 유형 결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넷째,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혼소송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부관계 유형 결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피해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고, 부부관계 유형에 따라 신체적, 상해 피해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지지 근원으로서 사회의 역할의 가족 다음 순위로서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이를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바람직한 부부관계유형을 결정하고 폭력 대처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가정폭력	6
2. 가정폭력의 피해수준	13
3.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근원	17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유형	23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27
2. 측정도구	27
3. 자료처리 방법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관분석	30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 근원간 차이검증	34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수준 정도	40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	42
V. 요약, 결론 및 제언	44
1. 요약	44
2. 결론	47
3. 제 언	48
참고문헌	50
Abstract	60
부 록	63

표 목 차

<표 II-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기간과 심각성의 연속성 5단계	14
<표 II- 2> CTS2(Conflict Tactics Scale)	16
<표 II-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정의	20
<표 III- 1> 피해수준 척도 신뢰도	28
<표 III- 2> 사회적 지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IV- 1> 조사대상자의 피해수준 기술통계	31
<표 IV- 2> 조사대상자의 피해수준 정도	32
<표 IV- 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기술통계	33
<표 IV- 4>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	33
<표 IV- 5>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34
<표 IV- 6> 사회적지지 근원의 기술적 분석	35
<표 IV- 7> 사회적지지에 따른 사회적지지 근원	36
<표 IV- 8> 사회적지지 근원중 가족 1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37
<표 IV- 9> 사회적지지 근원중 친구 1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38
<표 IV-10> 사회적지지 근원중 이웃 1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39
<표 IV-11> 사회적지지 근원중 사회의 1순위 따른 사회적 지지	40
<표 IV-12>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수준	41
<표 IV-1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43

그 립 목 차

[그림 II-1] 폭력의 심각성과 연속성에 따른 유형	15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개인에게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며, 어떤 집단이나 제도보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이다. Gilbert 와 Walker(2001)는 부부관계가 부적절한 갈등해결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 및 살인 등 심각한 폭력으로 심화되고 학습을 통한 폭력의 사회화 될 때 사회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2년 25.6%, 2004년 30.7%, 2006년 36.6%, 2008 35.4%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98%가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사회 이슈화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 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가정폭력은 비로소 법적인 장치를 통하여 개입할 수 있는 공적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부(2008)에 따르면 현재 여성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은 289개의 전문 상담소와 34개의 통합상담소, 82개의 쉼터, 전국 긴급여성전화 1366이 17개 등 전국 422개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의 문제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여성부(2008)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8,783가구 중 최근 1년간 아내폭력발생률은 33.1%로 부부 3쌍 중 1쌍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미국 28.8%, 뉴질랜드 21%, 방글라데시 19%, 스위스 6%, 호주 3%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서원(2005)에 의하면 가정폭력 조사의 경우,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응답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폭력발생률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수치보다 1.5배 정도 많으며, 우리나라 아내폭력의 발생률이나 피해는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0.8%, 경찰 신고율은 2.4%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고자 자신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인 것을 주변에 알렸거나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았다는 이는 13.4%에 불과하였다(이호중, 2008). 이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시행이후 아내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의존과 무기력 등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남편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낮은 지지체계 등 상황적 특성이 가정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배인숙, 2000).

이처럼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유로 장희숙 등(2003)은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정내의 문제해결수단으로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능하면 조용히 감추고 싶어 하는 경향으로 축소·은폐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의 해소방안으로 가정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홍보 강화, 사회적 지지망 활용, 폭력대처방안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Cohen과 Will(1985)은 그 중 사회적 지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하였으며, Thoits Peggy A.(1995)는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인 완충제가 되어 폭력 대처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도와 궁극적인 가정폭력 해소방안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최연경(2006)은 사회적 지지를 발현하는 근원으로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사회로 정의하였으며, 이들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통해 피해여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Gelles(1976)은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여성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여성의 비교연구에서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은 피해수준의 폭력을 경험 할수록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의 여성일수록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일수록 좀 더 폭력관계에 남아 있고 사회적인 자원, 지지가 부족한 여성일수록 좀 더 폭력관계에 남아있으면서 고통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실태와 현황, 전달체계 등을 다루는 연구(김재엽,

1998; 엄명용, 2001; 이화정, 2002; 이승민, 2004; 박애경, 2005; 여성부, 2008)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실용과 인지실태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영옥, 2005; 김주현, 2005; 배경진, 2006; 채수진, 1998; 최연경, 2005; 구수경, 2006)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경험에 따른 부적응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위기개입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피해수준과 사회적지지 정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근원체계에 대한 연구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위기개입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피해수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근원이 사회적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 유형과 사회적지지 근원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가설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여성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부부관계의 남편(사실혼 포함)으로부터 일상적이며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당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여성이다.

2) 피해수준

가정폭력을 당하는 폭력의 빈도와 피해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 등의 폭력에서 그 정도가 평균이상을 높은 피해수준으로, 평균이하를 낮은 피해수준으로 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도움과 자원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네 가지로 나뉜다. 사회적 지지 결과에서 평균점수보다 높으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균이하의 점수는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4) 사회적 지지의 근원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체계이며, 공식적 지지체계인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로, 비공식적인 체계로는 가족·친지, 친구, 이웃으로 설정한다.

5) 부부관계유형

부부관계 유형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폭력상황에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남편의 폭력행동에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부부관계 유지 유형(이혼의사 없이 쉼터에 있음, 가정에 있음)과 남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나 폭력 없이 살 자신의 권리와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부부관계 단절 유형(이혼, 이혼소송 중) 으로 구분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하는 상황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지지와 피해수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근원이 사회적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 중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1970년대 이후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학대(wife-abuse)의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박미은, 1996). 가정폭력의 분명한 그 정의를 위해서는 폭력의 대상, 의미, 범위, 반복성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김양희, 1998)

가정폭력의 대상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배우자, 동거 중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에 관련된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학대의 의미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비폭력적인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폭력은 주로 신체적인 공격을 일컫는 말이며, 구타는 반복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폭력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학대의 범위는 밀거나 따귀를 때리기에서부터 흉기를 사용하거나 성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신체적인 것과 배우자에게서 받은 수치심과 언어적 비하 등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학대 행위의 반복성은 행위가 일회성 아니면 반복적인가도 중요한 분류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폭력의 경우 단 1회일지라도 모두 학대로 간주하는 방법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폭력을 학대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

Richard(2003)는 가정폭력을 타인이 상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인 공격행동으로 보았으며, 아내구타는 이러한 가정폭력 중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신체적인 폭력(physical violence)에 초점을 두었다. 아내학대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성적학대, 강간, 구속, 경제적 박탈, 언어적 폭력 및 경멸 등 신체적·정신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채수진, 1997; 이은정, 2004).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1항)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대체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하는 것으로서 부부폭력은 물론 노인학대, 아동학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Roberts (2002)는 가정폭력을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에 중점을 두고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의 갈등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이며 물리적인 힘의 사용으로 정의한다. Mayhall과 Norgards(1983)는 가정폭력을 가족간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상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보았는데, 이 관점은 가족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남두, 2000, 재인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는 가정폭력을 법률이나 사회규범에 위반된 행동, 언어, 및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적이고 강제로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심리적, 물리적, 신체적 손상과 위해를 가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즉, 폭력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 또는 집단에게 신체적, 심리적·정서적, 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폭력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간의 질서, 어른과 아이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폭력에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반면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중독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정폭력을 여성의 종속과 모든 남성의 지배를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는 시각에서 이영주(2003)는 가정폭력을 ‘가정내에서 주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폭력 또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의도된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특정적으로 한국의 가정폭력은 주로 아내학대의 성격을 띠는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사례의 97.5%가 남성가해자였으며, 90.7%가 배우자 폭력이었다(박경숙, 2000; 이은정, 2004).

위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성적·상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며, 그 연구대상을 가정폭력 피해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의 유형

Gelles(1998)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유형은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그리고 성적폭력 등으로 나누었다. 그 중 신체적 폭력에 대해 권복순(1999)은 악의와 해를 끼치는 고의성을 내포하는 면에서는 다른 해악적 행위와 비슷하지만 신체적 고통의 괴로움이라는 점에서 독특하고, 폭력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신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므로 일차적으로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Gelles(1998)에 의해 정서적, 심리적 폭력의 영향이 신체적 피해의 영향보다 더 크고 깊으며 성적 학대는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의 상호관련성과 실태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가정폭력의 하위유형의 폭력 행위들을 아내폭력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폭행, 구타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 정서적 학대(신체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성적 학대(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입히는 것), 경제적 학대(돈을 벌거나 쓰거나 혹은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 스토킹, 위협 및 협박, 고립시키는 것, 가부장적 사고에 의한 권위주의의 실천 등 여러 가지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00).

Alan Kemp(2001)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단순한 폭행, 협박 등에서부터 성폭력 범죄 나아가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가정폭력의 유형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 없이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며, 밖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서 이해받기 어렵지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종류의 가정폭력으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경멸하는 말투와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말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체적 폭력은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밀치기, 때리기, 발로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흥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이 있다.

성적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동을 하거나 성적 행동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남성의 주된 폭력으로 이 두 가지의 형태의 학대는 상호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남편이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후에 아내에게 강제로 성교를 요구하는 것이다(Richard H. Mattson, 2003). 구타 후의 성폭력과 그것을 거부할 때 또 다른 폭력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는 심리적 폭력까지 병행되어 나타난다(이경혜 등, 2001). 즉,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등이 있다.

상해(폭력행위로 인해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이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뼈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상처가 생겨 몸이 아프게 하는 행위, 남편의 폭

력으로 인해 기절하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뼈가 부러져 치료를 요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김미선, 2002).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형 중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폭력, 신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신체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동을 하거나 성적 행동에 응하도록 하는 성적 폭력, 상처가 생겨 몸이 아프게 하는 행위인 상해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상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인 폭력을 당해도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내폭력이 너무 흔한 사회라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여성 자신이 폭력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식하여 폭력을 허용하기도 하며, 폭력은 너무나 거대한 사건이어서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할 때는 이혼이나 가정 파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피해여성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폭력과의 직면을 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폭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상황에 대해 무력감이나 뒷에 걸린 느낌 뿐 아니라 존엄성, 통제력, 안정의 상실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단되고 있다.

Rosewater(1988)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외상경험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외상경험과는 구별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의 외상경험이 학대 이전에 갖고 있던 병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결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유순옥, 2005 재인용).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매사에 불만이고, 우울하며,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정신이 흐릿하고, 판단력이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김혜선·신은주, 1997).

또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증오와 불안, 좌절, 긴장 등

으로 인해 여성이 파괴되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불만, 낮은 자존감, 흐린 판단력, 우울증, 학습된 무기력,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낙영(2002)의 연구에서도 아내폭력은 폭력의 피해자에게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안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은 부부관계 지속여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은 반복적인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많은 연구들은 아내들의 경제적 취약성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심리적인 의존 또는 무기력을 들고 있다(Strub & Barbour, 1984). 이러한 심리적 의존과 무기력 현상은 바로 폭력의 부정적인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다. 즉 학대로 인한 심리사회적 피해는 아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아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 및 서비스의 부족은 이러한 무기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성인인 배우자들이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과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과 수동적인 특성 때문이다. Walker(1997)는 매 맞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통해 폭력의 주기를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폭력의 주기는 매 맞는 아내가 어떻게 피해자가 되고, 학습된 무기력 행동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왜 구타상황을 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성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피해여성들은 분노, 혼란, 망상, 두려움, 비관 등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학대의 결과로 정신분열증 또는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학대발생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 학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성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Rhodes(1992)는 매 맞는 아내들은 학대경험이 없는 아내들에 비해서 정신병리적 일탈현상이 높게 나타나며 권위의 상실, 소외, 사회적 무감각, 그리고 가족불화의 요소들이 많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성격의 변화는 학대의 희생화 과정(victimization)의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였다(안효원, 2007 재인용).

정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피해여성들은 폭력경험이 없는 아내들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손상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런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학대의 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Sampsel(1992)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형성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반응은 학대과정에서 남편에 의한 심리적 애착이 왜곡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신은주, 1995 재인용).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 기대를 말로 표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변화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비록 결혼생활이 외롭고 고립되어 파괴적인 관계 안에 묶여도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미영, 1999).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측면의 피해를 살펴보면, 대처능력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며, 만성적인 소진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즉 친밀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사회적인 지지체계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박미은, 1996).

위에서 제시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력을 일반화 시키고, 허용하며, 폭력사건을 축소하고 회피하여 폭력을 당해도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의존성과 무기력 속에서 분노와 혼란 성향이 나타나며 우울과 불안의 혼재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가정폭력의 피해수준

1) 가정폭력 피해수준의 개념 및 유형

가정폭력 피해수준이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경험하는 폭력에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요인으로 폭력의 심각성, 피해정도, 폭력 빈도, 폭력지속기간 등을 말한다(Walker, 1997).

앞서 가정폭력에 유형에는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로 나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유형별로 피해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폭력의 심각성, 빈도, 지속성 등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randt(2002)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폭력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한정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가정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경험적 유형화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하위집단 간에 서비스 제공과 이용 서비스 결과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들의 연령과 자녀수 가해자의 유형, 그들이 가진 신념체계, 그리고 물질적 자원과 지지체계, 직업적 지위나 혹은 경제적 의존성,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과 지속기간에 따른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피해수준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약한 지지체계의 유형, 심각한 학대유형, 가장 총체적인 장애 유형, 자녀가 있는 무지 유형, 가장 낮은 장애유형, 젊고 무직이며 낮은 학대유형, 직업이 있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Roberts(2000)는 피해여성이 겪는 피해수준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그들은 배우자에 의해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폭력 사건을 견디어 왔고, 둘째 그들은 남편의 화와 모욕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셋째 이들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점을 전제로 여러 해 동안 만성적인 학대를 견디어 오면서 형성된 폭력의 만성적 범위를 폭력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연속성을 갖는 5단계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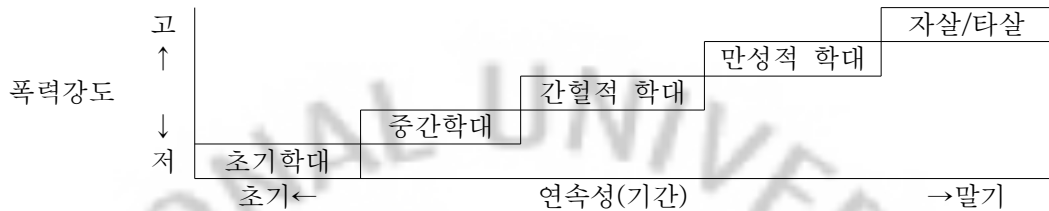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1년 미만의 부부관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폭력의 중간 단계로 폭력사건의 경험이 3-15회 정도에 이르며 몇 개월에서 2년까지 지속되며 상해의 중간정도가 된다. 피해여성들은 폭력의 상처나 상해 때문에 남편을 떠나려고 시도한다. 세 번째는 간헐적인 학대 단계로 4-30회 정도의 폭력 사건을 나타낸다. 이 경우 주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녀를 위해 참고 지내거나 또는 부유한 남편의 지위, 명예 등이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들 피해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해야 집을 떠날 수 있게 되며, 대안적 지지체계가 없다. 네 번째 만성적인 학대 단계로 수백 번의 폭력적 사건을 경험한 결과 이들은 심각하고 반복적 사건의 되풀이와 폭력 발생의 전조기가 드러남으로써 폭력을 예측 가능하게 되며, 때로는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의해 폭력이 더욱 촉진된다. 다섯 번째는 자살 또는 타살 가능성의 단계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폭력과 폭력의 강도도 최고조에 이른다. 이 단계는 폭력이 명시적인 죽음에 대한 위협과 삶의 위협이 되어 타살, 과실치사로 확대될 수 있다(이인숙, 2004 재인용).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기간과 심각성을 요약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기간과 심각성의 연속성 5단계

	1+	2+	3+	4+	5+
구분	단기간	중간정도	중장기간	장기/만성적	살인적인
폭력 정도	1년 미만	몇 달~2년	경고 없는 격렬하고 강한 폭력/폭력 없는 장기간	격렬하고 반복 사건/알코올 남용에 의한 간헐적 폭력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폭력/명백한 죽음에 대한 협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해/과실치사
폭력 구분	1~3회의 작은 사건	3~15회의 작은 사건	4~30회의 작은 사건	보통 몇 백번의 폭력행동	셀 수 없는 폭력과 혹독한 행동
단절 계기	1~2회 구타에 여지는 떠남	구타 목조름/상해로 떠남	자녀가 자랄 때까지 같이 살고 떠남	남편이 체포, 입원할 때까지 학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폭력증후군

출처 : Roberts, 2000, "Duration and Severity of Women Bettering", in handbook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Strategies, p.68

이러한 폭력의 강도에 따른 심각성과 그 기간의 연속성은 초기에는 낮은 폭력의 강도인 초기학대로 나타나다가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만성적 학대와 아울러 자살과 타살의 형태인 극단적인 폭력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를 제시하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폭력의 심각성과 연속성에 따른 유형

출처 : Roberts, 2000, "Duration and Severity of Women Battering", in handbook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Strategies, p.70

본 연구에서의 피해수준은 Brandt과 Roberts의 연구를 근거로 한 가정폭력의 유형에 따른 피해수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즉,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로 나누어 1년 또는 1년전에 받은 피해를 기준으로 폭력의 심각성, 빈도, 지속성 등의 의미로 피해수준이 사용하고자 한다.

2) 피해수준의 내용

1970년대 이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행위에 대한 관심증대 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Straus(1979)의 CTS1(Conflict Tactics Scale)은 부부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비신체적 폭력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을 다루고 있고, 그 편리성 때문에 오늘날 까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손정영, 1997; 배경진, 2006 재인용). 그가 개발한 CTS1은 비임상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척도를 미국전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척도임을 입증하였다.

Straus 등(1996)은 CTS1에 대한 연구자들의 비판 및 조언들을 근거로 개정된 CTS2(Conflict Tactics Scale 2)를 개발하고 이를 미국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폭력의 측정에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해수준 척도(CTS2)는 Straus(1996)에 의해 개발되었고, 손정영(1997)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재구성하여 피해수준 척도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된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의 3가지 하위척도 문항들이 추가되었다는 점, 둘째, “성적 폭력”에 대한 부분을 7문항으로 새로 구성하였고 확대결과인 신체적 상해도 6문항의 척도로 구성하였다는 점, 셋째, 몇 개의 문항은 서술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는 점, 넷째, 약한(minor)폭력과 심한(severe)피해수준을 구분하였다는 점, 다섯째, 응답방식을 단순화 하였다는 점, 여섯째, 문항배열을 무작위순으로 나누었다는 점이 있다.

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두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척도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를 하되, 본 연구에 맞게 협상(negotiation)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성적 폭력(sexual coercion), 상해(injury)의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CTS 2 척도의 내용은 <표 II- 2> 같다.

<표 II-2> CTS2(Conflict Tactics Scale)

폭력정도	기호	내 용
약한 폭력	K	물건을 던지는 행위
	L	밀기, 밀치기, 움켜잡기
	M	손바닥으로 때리기
심한 폭력	N	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치기
	O	도구를 가지고 때리거나 위협하기
	P	계속 무차별로 때리거나 눕히는 행위
	Q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기
	R	칼이나 총 등을 사용하기

이중에서 Straus는 K~M은 가벼운 정도의 학대행위로, N~R까지를 심각한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3.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근원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개념은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해 온 현상이지만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대두 되면서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상담소나 법률 기관 등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기반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는데 널리 이용하였다. 최근 들어서 와서 사회적 지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원조 등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Thoits Peggy A.(1995)는 사회적 지지를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의 기회, 가치의 확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도, 지침의 획득의 관계 제공이라고 정의하였고, Kahn(1990)은 사회적 지지란 한 인간의 타인에 대한 신뢰나 시인, 또는 타인에게 물질적 도움이나 정신적 도움을 주는 것 등에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지지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해로운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Silver와 Wortman(1980)은 광범위하게 학대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대생존자들의 자아존중감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가족, 친구, 이웃, 전문직의 원조,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재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국내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박미은(1996)은 매 맞는 아내들은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Wetherington와 Kessler(1986)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잠재적인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라는 믿음을 주는 정보라고 하였고, 이는 타인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한미현, 1996 재인용).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속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원조로써 개인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한다.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기능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House(1981)와 Kahn & Antonucci(1982)에 의해 개발·연구됐으며, 국내의 경우 박지원에 의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표준화 되었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지지라고 정의하면서, 스트레스의 해로운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Kahn과 Antonucci(1982)는 사회적지지가 애정(호감, 존경, 사랑의 표현), 확신(발언의 적절성,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의 표현), 보조(물품, 금전, 시간 및 자격을 포함한 직접적인 보조)의 세 가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대인간 교류로 그 유형을 정하였다.

박지원(1985)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 등을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들이 사회적응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시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지지에 속하는 일련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개인과 상호작용 하는 중요한 지지근원으로서 개인을 사회화 하고, 생활환경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였다.

Steinmetz(1987)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발생과 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가족이나 친구, 이웃,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얻고자 노력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는 경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아내구타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손상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채수진, 1997 재인용).

양돈규(1997)는 사회적 지지를 존경 및 애정 형태의 정서적 지지, 안내 및 지도 형태의 지지, 개인의 행위에 대해 반응해주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형태의 피드백 지지, 사회화 과정 혹은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형태의 지지, 현실 생활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형태의 실제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 등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장인협과 오세란(1995)은 사회적 지지의 실제적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독특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것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비판이 아닌 수용에 의해 이해되고 격려될 때, 궁극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의 사회적 지지 근원은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중요한 존재라는 피드백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행동의 변화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셋째, 강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진 피해여성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일어나는 심한 스트레스(stressor)에 대해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 근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부족하며 대개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고립하는 성격을 갖는데 사회적 지지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다시 접촉하면서 관계를 재확립하고, 결여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박지원(1985)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통제 기능을 하며, 심리·정서적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폭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자원들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표 II-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II-3>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정의

하위 척도	내 용
정서적 지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을 나누는 행위
정보적 지지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물질적 지지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물건 제공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평가적 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 또는 부정 등 자기평가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행위

3) 사회적 지지의 근원

사회적 지지의 근원은 대인관계 조직망으로 지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 개인이 다양한 관계망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빈도, 지속성,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의 유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전철은, 2002).

Thoits(1995)은 사회적 지지의 근원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느 정도 소외·통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연경(2006)은 개인의 발달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근원은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서 가족·친지, 친구, 이웃, 사회로 구분 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는 사회적 지지 근원을 가족, 친구, 성직자, 법률가,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로 구분하면서,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상담가와 같은 주변의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 체계로부터 고립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구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Goldfried(2000)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을 크게 자연적 원조체계(가족, 친척, 이웃), 상호원조체계(자조집단, 지지집단), 전문가 원조망(성직자, 교사)과 전문가 원조체계(사회복지사)로 구분했다. 하지만 Farguharson(1998)은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하나의 연속된 단일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때의 구분기준을 자아 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1차적 관심, 원조관계의 지속성, 상호적 또는 일방적 원조, 장기간 지속되는 단기간의 변화, 기능적, 사회적, 지역적 동료관계 또는 비동료 관계로 차원화 했다.

여성부(2008)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 근원을 가족, 친구, 이웃, 종교지도자, 쉼터 및 상담소, 경찰서, 따로 사는 자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간 큰 차이 없이 가족으로부터 46.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로 사회로부터 지지가 전체 33.3%, 그 다음 순위는 친구 8.2%와 이웃 5% 등의 순서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 지지 근원의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사회적 통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가족

개인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족환경이다. 가족은 개인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근원으로서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제공받는다(Thoits, 1995). 그러나 구성원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상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가족 간의 불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Germain, 1991).

(2) 친구

Farguharson(1998)은 사회적지지 근원에 대한 연구에서 친구관계는 부모나 형제 등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숙(2007)은 개인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건강한 삶과 비행 및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하는 등 스트레스 대응방법에 많은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3) 이웃

Litwak와 Szeleny(2005)는 사회적지지 근원 중 이웃을 타 근원보다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특성으로 중장기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과업에 적합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면접촉과 반응의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급박한 욕구충족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4) 사회

사회(사회복지사·상담원 등)는 개인에게 가족, 친구만큼이나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정서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혼란스러운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상담원 등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사회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Goldfried, 2000).

이와 같은 정의들을 살펴볼 때, 피해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지지 근원은 주로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의미있는 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여성들은 친밀하고 중요한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 근원의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사회적 통제기능을 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연경(2006)의 사회적지지 근원체계로 나눈 가족, 친구, 이웃, 사회(사회복지사·상담원 등)로 구분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유형

1) 부부관계유형 개념

부부관계유형이라 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부관계를 단절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왜 부부관계를 단절하려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많은 기여를 한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이다. 즉, 결혼관계가 보상적이면 관계가 지속되지만 비용이 보상보다 크면 그 관계는 약화되어 종결된다는 것이다.

부부관계 유지결정의 유형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경제적 부담감,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 고려하여 남편의 폭력행동을 변화시킴으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희망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결정 하여 가정에 남아 있거나 이혼의사 없이 쉼터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부부관계 단절결정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깨달음, 폭력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깨달음, 생명의 위협, 자녀의 심리·신체적 안전 확보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혼이나 이혼의 과정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선택하게 된다(유계숙 외, 2006).

또한 피해여성들은 부부관계유형에 있어서 가장 자녀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앞으로도 계속 구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자녀를 위해 형식적이거나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피해여성이 부부관계유형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가 자녀 문제보다 자신의 욕심이나 체면유지였음을 깨닫게 된다. 즉, 온전한 가정이란 단지 부모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양육과 보호를 위하여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바꾸게 된다(주혜주,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유형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부관계를 단절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부부관계 단절 결정의 유형으로 이혼, 이혼소송 중 혹은 이혼숙

러기간 중으로 정하고 부부관계 유지 결정으로 이혼의사 없이 쉼터에 있음, 가정에 있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부부관계유형

(1) 부부관계 유지(이혼의사 없이 쉼터입소, 가정에 있음)

가정폭력을 당해도 가정을 떠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일련의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폭력이 너무 흔한 사회라고 정도 폭력은 누구나 겪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건을 축소시키는데 익숙하며, 심각한 피해수준에도 학습된 무기력과 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가정에 머무는 특성이 있다.

Gelles(1976)의 조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여성 41명의 여성과 심층 면접을 한 결과 학대가 덜 심하거나, 빈도가 적었을 경우,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학력이 낮고 직업이 없으면 가정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83년에 Strub & Barbour는 지역 사회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98명의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여성이 심리적으로 말려드는 관계와 경제적인 의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직업이 없는 피해여성, 갈 곳이 없는 여성과 남편의 학대 행동이 변화 될 거라고 믿는 여성은 남편에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Moll Sara Hook(1992)은 쉼터를 이용한 후 남편에게 돌아간 여성과 자립여성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피해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능력이 없을수록, 남편의 폭력 시 흉기 사용이나 생명의 위협이 없을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Schecter과 Ganley(1995)는 피해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선택의 부족, 경제력 결핍, 부부관계에 머물기를 권고하는 문화, 가해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믿음 등의 이유로 폭력관계에 벗어나지 못해 이혼의사없이 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정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혼의사 없이 쉽터에 입소하거나 가정에 머문다. 이처럼 부부관계 유지를 결정하는 여성의 특성을 종합하면,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없고, 남편의 학대가 심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며, 언젠가는 남편이 변화되리라고 믿는 경우, 갈 곳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2) 부부관계 단절(이혼 및 이혼소송 중)

우리나라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개입방법은 두 가지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가해자에게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교정·치료하고 피해여성에게는 폭력에서 벗어나 보다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 의료, 사회복지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여성이 가해자의 폭력을 공포와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어 신고·고소한다면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원망하고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별거나 이혼을 제기하게 된다. 즉 부부관계 단절을 결정하여 가해자와 분리되고 자신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Bowker(1983)는 폭력을 멈추는 것을 보장하는 전력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나 자원이 아니고 피해여성이 폭력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결정을 확실하게 할 때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alker(1984)는 폭력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심한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Moll Sara Hook(1992)은 쉽터 이용자 42명에 대해 쉽터를 이용 한 후, 남편에게 돌아간 여성과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립한 여성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남편의 폭력 시 흥기사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록, 자립한 경우가 많았다.

Strube와 Barbour(1998)는 피해여성 중 외부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여성이 학대관계를 더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적

지지를 잘 활용하고 자존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보다 쉽게 폭력관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배인숙, 2000; 장희숙 등, 2003; 최연경, 2006 재인용).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내구타 피해여성이 폭력관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특징은 학력이 높고, 결혼연한이 짧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남편의 폭력이 생명을 위협 할 정도로 위험하고, 지지체계 활용도가 높고, 사고방식이 전통적이 아니고 자유로울 때, 폭력관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기관, 상담소,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쉼터 등을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연령, 학력, 직업유무, 결혼기간, 경제력 정도를 고려하여 표집한 108명이다.

2. 측정도구

1) 피해수준 척도(CTS2 : Conflit Tactic Scale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해수준척도(CTS2)는 Straus(1996)에 의해 개발되었고, 손정영(1997)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재구성하여 피해수준 척도로 재정의 되었다. 그 내용상으로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비신체적 폭력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편리성 때문에 오늘날 까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김재엽, 1998; 배경진, 2006).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피해수준에 대한 하위문항들의 분류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Chronbach's α .943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 피해수준 척도 신뢰도

폭력유형	폭력정도	하위문항	Chronbach's α
심리적 폭력	약한 폭력	1, 15, 21, 27.	.740
	심한 폭력	10, 12, 26, 28	.652
신체적 폭력	약한 폭력	2, 3, 6, 19, 23	.899
	심한 폭력	8, 11, 14, 16, 18, 30	.874
성적 폭력	약한 폭력	5, 22	.757
	심한 폭력	7, 20, 25, 31	.730
상해	약한 상해	4, 29	.789
	심한 상해	9, 13, 17, 24	.772
전체			.943

가정폭력의 하위유형들은 약한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나뉘어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그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문항은 총 7개로 '1년전 발생과 전혀 없음' 0점, '1회' 1점, '2회' 2점, '3~5회' 3점, '6~10회' 4점, '11~20회' 5점, '20회 이상' 6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서 하위형태는 정서적 지지 9문항, 정보적 지지 7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 그리고 평가적 지지 5문항을 합하여 총 25문항인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다. 즉, '매우 그렇다.' 5점, '거의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또한 <표 III-2>같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Chronbach's α .925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 사회적 지지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사회적지지 하위유형	문항수	하위문항	Chronbach's α
정서적지지	9	1.2.3.4.5.6.7.8.9	.918
정보적지지	7	10.11.12.13.14.15.16	.941
물질적지지	4	17.18.19.20	.843
평가적지지	5	21.22.23.24.25	.928
전 체	25		.925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표차 등을 기술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사회적지지 근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부부관계 유형과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른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장에서는 제주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분석, 사회적 지지근원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검증, 변량분석 실시,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수준과 사회적지지 등을 밝히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지지의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수준을 심리적, 신체적, 성적, 상해 피해수준으로 분류하였고, 사회적 지지도 그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인가’를 검증해 보니, 각 요인의 하위유형간 $p < 0.01$ 수준의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피해수준과 성적 피해수준은 정서적 지지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신체적 피해수준에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전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상해 피해수준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피해수준 정도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 1>과 같이 심리적 피해수준은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빈도에 관한 연구를 한 정서영(1995)과 손연주(1997)의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서 심리적 폭력은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 1> 조사대상자의 피해수준 기술통계

피해수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0.00	6.00	3.83	1.45
신체적	0.00	6.00	2.57	1.59
성 적	0.00	5.83	1.23	1.23
상해적	0.00	6.00	1.67	1.18
전 체	0.00	5.32	2.46	1.2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의 유형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 4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폭력 피해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 2>과 같다.

심리적 약한 폭력의 경우 20회 이상의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강한 폭력 또한 20회 이상의 피해수준이 전체응답자 중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빈도 측면에서 심리적 폭력이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 피해수준의 분석결과는 신체적 약한 폭력의 경우 3-5회의 응답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강한 폭력의 경우 없음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인 남편은 부부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정도의 신체적 약한 폭력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장 쉽게 사용하며 신체적 강한 폭력은 법적 제재와 관계단절을 우려하여 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성적폭력, 상해 피해수준 분석결과에서는 약한 폭력이나 심한 폭력 둘 다 없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이미 폭력이 만성화됨에 따라 심리적 폭력 이외의 유

형 간에 큰 편차가 없음을 나타낸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피해수준 정도

폭력 유형	폭력 정도	피해수준									계
		빈도 /%	없음	1회	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	1년전 발생	
심리적 폭력	약한 폭력	빈도	8	7	14	50	64	58	208	23	432
			(1.9)	(1.6)	(3.2)	(11.6)	(14.8)	(13.4)	(48.2)	(5.3)	(100)
심리적 폭력	심한 폭력	빈도	82	31	52	56	48	45	101	17	432
			(19)	(7.2)	(12.0)	(13.0)	(11.1)	(10.4)	(23.4)	(3.9)	(100)
계		명	90	38	66	106	112	103	309	40	864
			(10.4)	(4.4)	(7.6)	(12.3)	(13.0)	(11.9)	(35.8)	(4.6)	(100)
신체적 폭력	약한 폭력	빈도	70	41	85	104	87	54	73	26	540
			(13.0)	(7.6)	(15.7)	(19.3)	(16.1)	(10.0)	(13.5)	(4.8)	(100)
신체적 폭력	심한 폭력	빈도	168	55	102	109	67	50	62	35	648
			(25.9)	(8.5)	(15.7)	(16.8)	(10.3)	(7.7)	(9.6)	(5.4)	(100)
계		명	238	96	187	213	154	104	135	61	1188
			(20.0)	(8.1)	(15.7)	(17.9)	(13.0)	(8.8)	(11.4)	(5.1)	(100)
성적 폭력	약한 폭력	빈도	67	6	49	31	15	16	18	14	216
			(31.0)	(2.8)	(22.7)	(14.4)	(6.9)	(7.4)	(8.3)	(6.5)	(100)
성적 폭력	심한 폭력	빈도	288	4	55	28	11	13	8	25	432
			(66.7)	(0.9)	(12.7)	(6.5)	(2.6)	(3.0)	(1.9)	(5.8)	(100)
계		명	355	10	104	59	26	29	26	39	648
			(54.8)	(1.5)	(16.0)	(9.1)	(4.0)	(4.5)	(4.0)	(6.0)	(100)
상해	약한 상해	빈도	27	16	37	52	21	21	34	8	216
			(12.5)	(7.4)	(17.1)	(24.1)	(9.7)	(9.7)	(15.7)	(3.7)	(100)
	심한 상해	빈도	226	39	73	37	18	3	10	26	432
			(52.3)	(9.0)	(16.9)	(8.6)	(4.2)	(0.7)	(2.3)	(6.0)	(100)
계		명	253	55	110	89	39	24	44	34	648
			(39.0)	(8.5)	(17.0)	(13.7)	(6.0)	(3.7)	(6.8)	(5.3)	(100)

사회적지지 형태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3 >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 정도는 총점 5점 중 3.70점으로 대체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총 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보적 지지가 가장 높고,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한 제공을 받고 있으나 피해여성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적 지지에서는 비교적 낮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기술통계

지지유형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	표준편차
정서적지지	1.78	5.00	3.76	0.60
정보적지지	1.00	5.00	3.90	0.62
물질적지지	1.00	5.00	3.79	0.63
평가적지지	1.00	5.00	3.37	0.75
총 사회적지지	1.19	5.00	3.70	0.51

사회적지지 형태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정서적지지에서는 “거의 그렇다”가 54.32%, 정보적 지지에서는 58.99%, 물질적지지에서는 46.30%, 평가적지지에서는 61.48%, 총사회적지지에서는 55.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지지 유형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이에 사회적지지 유형 제공 서비스로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4>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

구분		전혀	거의	그저	거의	매우	계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정서적지지	빈도	11	41	256	528	136	972
	백분율	1.13	4.22	26.34	54.32	13.99	100.00
정보적지지	빈도	8	9	163	446	130	756
	백분율	1.06	1.19	21.56	58.99	17.20	100.00
물질적지지	빈도	19	57	128	200	28	432
	백분율	4.40	13.19	29.63	46.30	6.48	100.00
평가적지지	빈도	6	15	127	332	60	540
	백분율	1.11	2.78	23.52	61.48	11.11	100.00
총사회적지지	명	44	122	674	1506	354	2700
	%	1.63	4.52	24.96	55.78	13.11	100.00

피해수준과 사회적지지 사이의 관계를 알기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 5>과 같다. 피해여성들의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피해수준이 낮은 양상의 양 변인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의미있게 나타난 결과로는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완충효과로서 심리적 피해수준이 낮은 $p<0.001$ 수준의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피해수준과 상해 피해수준은 똑같이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 $p<0.05$ 의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폭력 피해수준에 적절한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질적 도움으로 폭력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5>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피해수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평 균
심리적	-0.4829***	-0.0641	-0.1489	-0.0934	-0.1907*
신체적	-0.4205**	-0.2188**	-0.2555**	-0.2302*	-0.3528**
성 적	-0.1924*	-0.0597	-0.0886	-0.0605	-0.1250
상 해	-0.3191**	-0.1491	-0.2695**	-0.0930	-0.2651**
평 균	-0.3802**	-0.1594	-0.2252	-0.1819	-0.2941**

* $p<0.05$, ** $p<0.01$, *** $p<0.001$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 근원간 차이검증

가설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지지 유형별 근원간 변량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 근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표 IV- 6>

와 같이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에서는 가족이 50.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적 지지는 사회가 50.00%, 물질적지지에서는 가족/친척 69.44%, 평가적 지지는 사회가 4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의 근원으로는 피해여성 자신에 대한 이해,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지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식에 변화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6> 사회적 지지 근원의 기술적 분석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명	%	명	%	명	%	명	%
정서적 지지	55	50.93	19	17.59	1	0.93	33	30.56
정보적 지지	22	20.37	29	26.85	3	2.78	54	50.00
물질적 지지	75	69.44	17	15.74	3	2.78	13	12.04
평가적 지지	30	27.78	30	27.78	3	2.78	45	41.67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사회적 지지 근원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적 지지 근원에 대해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836$, $p < 0.01$). 주로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한 한 사회($M=3.94$)와 가족($M=3.83$)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는 사회($M=4.23$)와 가족($M=3.87$)에서, 물질적 지지는 가족($M=3.65$)과 친구($M=3.41$)로부터, 평가적 지지는 사회($M=3.88$)와 가족($M=3.86$)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는 사회($a=4.23$)와 가족($a=3.87$)에서, 물질적 지지는 가족($a=3.65$)과 친구($a=3.41$)로부터, 평가적 지지는 사회($a=3.88$)와 가족($a=3.86$)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지지근원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지지근원으로서 이웃은 각기 다른 산업경제 환경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류단절로 인해 과거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IV-7>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사회적 지지 근원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정서적 지지	가족	56	3.83	0.54	7.669**
	친구	19	3.49	0.36	
	이웃	4	2.72	0.67	
	사회	29	3.94	0.65	
	계	108	3.76	0.60	
정보적 지지	가족	56	3.87	0.55	6.960**
	친구	19	3.67	0.42	
	이웃	4	3.07	1.65	
	사회	29	4.23	0.47	
	계	108	3.90	0.62	
물질적 지지	가족	56	3.65	0.58	10.406***
	친구	19	3.41	0.53	
	이웃	4	2.25	1.04	
	사회	29	2.97	0.84	
	계	108	3.37	0.75	
평가적 지지	가족	56	3.86	0.53	3.176*
	친구	19	3.61	0.47	
	이웃	4	3.00	1.67	
	사회	29	3.88	0.63	
	계	108	3.79	0.63	
사회적 지지 전체	가족	56	3.80	0.43	6.836**
	친구	19	3.54	0.34	
	이웃	4	2.76	1.21	
	사회	29	3.75	0.48	
	계	108	3.70	0.51	

* p<0.05, ** p<0.01, *** p<0.001

사회적지지 근원 중 가족 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 8>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적 지지 근원중 가족을 1순위로 선택한 피해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는 p<0.01수준에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의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사회적 지지 근원중 가족을 1순위로 선택한 피해여성이 전체의 연구대상의 50%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 물질적 지지에서는 1순위 평균값과 3순위, 4순위와 그 평균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피해여성이 자신의 피해수준 외부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더 이상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노출시켜 공식적 개입방안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8> 사회적 지지 근원중 가족 1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정서적 지지	1순위	56	3.83	0.54
	2순위	31	3.74	0.72
	3순위	15	3.70	0.57
	4순위	6	3.35	0.41
	계	108	3.76	0.60
정보적 지지	1순위	56	3.87	0.55
	2순위	31	3.99	0.76
	3순위	15	3.88	0.53
	4순위	6	3.81	0.74
	계	108	3.90	0.62
물질적 지지	1순위	56	3.65	0.58
	2순위	31	3.14	0.86
	3순위	15	2.97	0.78
	4순위	6	3.04	0.60
	계	108	3.37	0.75
평가적 지지	1순위	56	3.86	0.53
	2순위	31	3.76	0.71
	3순위	15	3.60	0.75
	4순위	6	3.73	0.79
	계	108	3.79	0.63
사회적 지지 전체	1순위	56	3.80	0.43
	2순위	31	3.66	0.64
	3순위	15	3.54	0.45
	4순위	6	3.48	0.53
	계	108	3.70	0.51

** p<0.01, *** p<0.001

사회적 지지 근원 중 친구 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사회적 지지 근원중 친구를 1순위로 선택한 피해여성은 전체 18%로서 p<0.05 수준에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여성에게 친구는 관계의 한계성으로 인해 개입의 범위나 문제해결 방법에 피해여성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9> 사회적 지지 근원중 친구 1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정서적지지	1순위	19	3.49	0.36
	2순위	33	3.85	0.54
	3순위	46	3.85	0.66
	4순위	10	3.54	0.71
	계	108	3.76	0.60
정보적지지	1순위	19	3.67	0.42
	2순위	33	3.83	0.55
	3순위	46	4.06	0.71
	4순위	10	3.84	0.62
	계	108	3.90	0.62
물질적지지	1순위	19	3.41	0.53
	2순위	33	3.35	0.78
	3순위	46	3.35	0.83
	4순위	10	3.50	0.69
	계	108	3.37	0.75
평가적지지	1순위	19	3.61	0.47
	2순위	33	3.82	0.59
	3순위	46	3.87	0.69
	4순위	10	3.64	0.74
	계	108	3.79	0.63
사회적지지전체	1순위	19	3.54	0.34
	2순위	33	3.71	0.49
	3순위	46	3.78	0.57
	4순위	10	3.63	0.58
	계	108	3.70	0.51

* p<0.05

사회적지지 근원 중 이웃 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으며, 전체 사회적 지지에서 1순위와 그 외 순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을 사회적 지지 근원 중 1순위로 선택한 피해여성은 전체 108명중 4명인 3.5%로 그 빈도가 매우 낮다. 이는 피해여성에게 이웃은 지지근원 1순위로서의 인식이 낮고, 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나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0> 사회적 지지 근원중 이웃 1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정서적지지	1순위	4	2.72	0.67
	2순위	4	3.75	0.17
	3순위	17	3.52	0.57
	4순위	83	3.86	0.56
	계	108	3.76	0.60
정보적지지	1순위	4	3.07	1.65
	2순위	4	3.79	0.27
	3순위	17	3.63	0.67
	4순위	83	4.00	0.50
	계	108	3.90	0.62
물질적지지	1순위	4	2.25	1.04
	2순위	4	3.13	0.60
	3순위	17	3.43	0.61
	4순위	83	3.43	0.74
	계	108	3.37	0.75
평가적지지	1순위	4	3.00	1.67
	2순위	4	3.30	0.76
	3순위	17	3.73	0.54
	4순위	83	3.86	0.54
	계	108	3.79	0.63
사회적지지전체	1순위	4	2.76	1.21
	2순위	4	3.49	0.33
	3순위	17	3.58	0.51
	4순위	83	3.79	0.42
	계	108	3.70	0.51

** p<0.01, *** p<0.001

사회적 지지 근원 중 사회를 1순위로 선택한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사회적 지지 근원중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 등 사회를 1순위로 선택한 피해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는 p<0.01수준에서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특히,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는 p<0.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사회로부터 가장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신을 걱정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새롭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 주는 사회적 지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1> 사회적 지지 근원중 사회의 1순위 따른 사회적 지지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정서적지지	1순위	29	3.94	0.65
	2순위	40	3.70	0.57
	3순위	30	3.78	0.50
	4순위	9	3.35	0.67
	계	108	3.76	0.60
정보적지지	1순위	29	4.23	0.47
	2순위	40	3.90	0.59
	3순위	30	3.82	0.41
	4순위	9	3.10	0.97
	계	108	3.90	0.62
물질적지지	1순위	29	2.97	0.84
	2순위	40	3.60	0.58
	3순위	30	3.58	0.61
	4순위	9	2.94	0.94
	계	108	3.37	0.75
평가적지지	1순위	29	3.88	0.63
	2순위	40	3.83	0.58
	3순위	30	3.79	0.52
	4순위	9	3.31	1.00
	계	108	3.79	0.63
사회적지지전체	1순위	29	3.75	0.48
	2순위	40	3.76	0.44
	3순위	30	3.75	0.44
	4순위	9	3.17	0.84
	계	108	3.70	0.51

** p<0.01, *** p<0.001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수준 정도

가설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유형별 피해수준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상해 피해수준에서 이혼소송중(M=3.62)인 피해여성이 이혼(M=1.46)을 이미 했거나 쉽터(M=1.59)혹은 가정(M=1.44)에 머물고 있는 여성보다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342, p<0.01).

신체적 피해수준에서도 이혼소송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와 상해는 이혼소송중인 피해여성에게 폭력의 정황과 폭력 자체의 부당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어 부부관계 유형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요완(2006)의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과정 중 폭력행동이 이혼소송의 중요한 원인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표 IV-12>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피해수준

피해수준	부부관계유형	빈도(N)	평균(A)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심리적	이혼	17	3.43	1.69	.763
	이혼소송중	32	4.02	0.96	
	쉽터생활중	22	4.00	1.79	
	가정생활중	37	3.74	1.15	
	계	108	3.83	1.45	
신체적	이혼	17	2.10	1.43	2.923*
	이혼소송중	32	3.98	0.42	
	쉽터생활중	22	2.57	1.82	
	가정생활중	37	2.31	1.38	
	계	108	2.57	1.59	
성적	이혼	17	0.84	0.70	2.101
	이혼소송중	32	1.64	1.47	
	쉽터생활중	22	1.27	1.37	
	가정생활중	37	1.04	1.04	
	계	108	1.23	1.23	
상해	이혼	17	1.46	1.07	3.342**
	이혼소송중	32	3.62	0.48	
	쉽터생활중	22	1.59	1.21	
	가정생활중	37	1.44	1.25	
	계	108	1.67	1.18	
피해수준전체	이혼	17	2.07	1.14	2.523*
	이혼소송중	32	3.87	1.27	
	쉽터생활중	22	2.50	1.44	
	가정생활중	37	2.27	1.08	
	계	108	2.46	1.25	

* p<0.05, ** p<0.01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

가설 4.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 IV-13>와 같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 대해서 이혼소송중인 집단이 다른 이혼하거나, 쉼터나 가정에 있는 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640, 3.321,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소송중인 피해여성은 이미 이혼을 했거나 이혼의사가 없는 피해여성보다 자신의 피해수준을 외부에 노출하여 사회적인 지원체계인 정보적, 물질적 지지가 필요한 집단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여성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체계와 경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부부관계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사후검증)
정서적 지지	이혼	17	3.65	0.85	1.988
	이혼소송중	32	3.68	0.53	
	쉽터생활중	22	3.80	0.60	
	가정생활중	37	3.85	0.51	
	계	108	3.76	0.60	
정보적 지지	이혼	17	3.75	0.84	4.640**
	이혼소송중	32	4.89	0.27	
	쉽터생활중	22	4.03	0.39	
	가정생활중	37	3.91	0.59	
	계	108	3.90	0.29	
물질적 지지	이혼	17	3.10	0.80	3.321**
	이혼소송중	32	4.87	0.37	
	쉽터생활중	22	3.42	0.53	
	가정생활중	37	3.52	0.72	
	계	108	3.37	0.33	
평가적 지지	이혼	17	3.64	0.90	.957
	이혼소송중	32	3.76	0.62	
	쉽터생활중	22	3.73	0.67	
	가정생활중	37	3.92	0.45	
	계	108	3.79	0.63	
사회적지지 평균	이혼	17	3.53	0.76	2.672
	이혼소송중	32	3.66	0.32	
	쉽터생활중	22	3.74	0.41	
	가정생활중	37	3.80	0.40	
	계	108	3.70	0.51	

** p<0.01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도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지각하는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이며,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근원들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 그리고 부부관계 유형과 사회적 지지근원에 따라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남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건강한 부부관계유지 및 단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관계유형은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108부의 검사지가 분석되었다.

설문지는 Straus(1996)에 의해 개발되었고, 손정영(1997)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재구성한 갈등관리척도(CTS2)를 사용하였는데, 심리적 폭력 8문항, 신체적 폭력 11문항, 성적폭력 6문항, 상해 6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측정도구는 박지원(1985)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총 25문항이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여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차이검증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부관계 유형과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른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조사대상자들의 피해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약한 폭력은 기본으로 경험했으며, 평균폭력인 3-5회 이상인 심각한 폭력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4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총점 5점 기준으로 평균 3.70점(표준편차 .51)으로 '거의 그렇다'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에서는 54.3%, 정보적 지지에서는 58.9%, 물질적 지지에는 46.3%, 평가적 지지에서는 61.4%로 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정서적 지지>물질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별로 도움을 받는 근원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는 근원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적 지지에서는 사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족>친구>이웃 순서로 근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물질적 지지에서는 가족>친구>사회>이웃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가적 지지에서는 사회>가족>친구>이웃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근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받고 있고,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로부터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치유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도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웃은 사회적 지지 근원으로서의 1순위로 선택한 이가 거의 없었고, 그 만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지지근원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총체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제공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가족>사회>친구>이웃 순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가설 3.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피해수준과 상해 피해수준은 부부관계 유형과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신체적 피해수준과 상해 피해수준은 드러내기 힘든 심리적 피해수준이나 성적 피해수준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폭력의 입증이 쉽고, 법률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인식과 법률 체계의 반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4.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부부관계 유형 결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정보적 지지를 통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사회복지 체계와 연결되고, 피해극복을 위해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제공받아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이 부부관계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물질적 지지 정도에 따라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부부관계 유형 결정에 영향이 미친다.

2. 결 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그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식보다는 참고 견디려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피해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 활용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조사되었다. 보다 바람직한 부부관계유형을 위해 폭력을 단절시키고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관에 요청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국가기관, 초·중·고교,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교육을 실시해 ‘폭력’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부적 상관인 결과는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데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지지 근원으로서 상담원과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지지 역할에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보다 원활한 피해극복을 돕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복지기관, 법률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자녀 양육비 국가의 선지급 후구상 제도, 직업재활서비스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피해수준 정도에 따라 분류

하여 위기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자조집단구성을 상시 운영하여 심리적 치유와 부부관계 유형 결정에 고민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최선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사회적 지지 하위유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대처방식을 파악에 많은 제한점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피해수준에 알맞은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은 사회적 개입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부부관계유형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제 언

지금까지 살펴본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 표본추출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소, 법원, 법률구조공단,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피해수준 정도나 사회적지지 정도의 표준편차가 크지 않았다. 추후 관련 연구자는 공식적인체계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받으려는 이들 외에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을 포함하여 표본을 더 크게 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부부관계유형을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기간적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수준을 볼 때, 1년 동안 혹은 1년 전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가정폭력 피해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일시적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성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정립 및 그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 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출청소년 부랑경험의 정도와 형태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수현(2000). 이혼중재의 중립성에 관한 연구 : 치료적 가족중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49-68
- 곽배희(2004). 이혼 전 상담제도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이혼 전 상담제도 자료집.
- 권복순(1999).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
지학』 . 53: 9-39
- 김광일(1988).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탐구
당, 140~177.
-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역학조사, 정신건강 연구, Vol.137. p.1366-1347
- 김명숙(2007).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02). 쉼터거주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원예치료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1999).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야자·송성자·김윤희·양수(2006). 이혼상담 3회기 모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편.
이혼상담 법제화를 위한 제2회 전국상담전문자 교육대회 자료집.
- 김은경외(2008).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울아카데미
- 김주현(2006).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1999).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필요성 : 부부폭력을중심으
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호.

- 김재엽·이서원(2002). 한국부부의 의사소통과 가정폭력,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
논총 제33권, 하권, 1~91.
- 김혜동(2003). 가정폭력 상담소 내담자의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2002). 사회적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김혜선(1999). 여성상담의 유형별 접근구타, 여성상담 전문교육 27기 자료집
- 류경숙(2004).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구타당하는 아내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혜(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
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은(1996). 학대받는 아내의 심리사회적 대응과정과 사회사업적 임파워먼트. 『정신
보건과 사회사업』. 3: 53-80
- _____(1998).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숙희(2004). 장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이혼 지연 경험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 위논문
- 박혜인(2000).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가정폭력 자료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 배인숙(2000). 아내구타 피해여성의 이혼·별거 결정에 영향을 미친 특성에 관
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진(2006).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원행정처(2003). 조정실무. 법원행정처.
-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20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연구-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 12(1): 51-87
- 송남두(2000). 가정폭력이 아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2006). 가정법원 이혼상담의 효과.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편. 이혼상담 법제화를 위한 제2회 전국 상담전문가 교육대회 자료집.
-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효원(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조집단 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5). 2004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_____ (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영진(2003). 아동의 성격특성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외(2006). 이혼 전·후 가족상담 운영 모형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 2호, pp. 59-96
- 유계숙·최성일(2005). 이혼 숙려 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연구보고서.
 _____(2005). 이혼 숙려 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57-92.
- 유계숙·정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2003). 부모학. 도서출판 신정.
- 유순옥(2005). 삶의 목적, 인간관계, 사회적 지지가 피학대 아내들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진·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8(2), 311-327

이강원(2005). 협의이혼 전 상담의 시범실시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제도 법률 강의.**

이명신·김유순(2006).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모델 비교, **한국여성개발원**

이무영(2003). **이혼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서원(1997). **열등의식과 성역할 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05). 제주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족사랑쉼터**, 13-128

이선옥(2004).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대학생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희(2004). **사이코드라마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거취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위기개입서비스 연계망 모형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호중(20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한국부호관찰학회 2008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75면**

이경혜·우선혜·양순옥·한영란·이숙·(2001). **가족건강 간호학**, 신광출판사, 233-234

장수미(2003).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 폭력행동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장인협·오세란(1995). **사회지지체계론: 기초이론과 실천사례.** 사회복지실천연구소.

장정자(2006). **쉼터 거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가정 복귀 및 자립요인- 경남/부산지역 11개 쉼터를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희숙·허남순·김유순(2001).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

- 인. 『한국가족복지학』.B7: 231-254
- 장희숙·정정호·김예성·변현주(2003).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행위자 특성 및 유형연구, 여성부.
- 전은옥(2002). 피학대 아내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철은(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혜주(2005). 이혼 여성의 이혼 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전공
- 창원여성의집(2001). 한국의 여성정책, 경남, 불휘
- 채수진(1997). 아내구타 피해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낙영(2002). 카톨릭 기혼여성들의 아내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과 영향 미치는 요인연구- 대전시내 천주교회 여성신자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경(2006).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4).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및 이혼과정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에 위한 심포지엄 보고서.
- _____ (2004). 가정폭력, 향후 10년을 바라보다.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 _____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 가정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 가정상담 300호 특집-한국가족의 변화(1955-200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학교에서의 성인지적폭력예방교육 매뉴얼- 우리가 만드는 멋진세상.
-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2006). 상담전문가 자격규정.
- _____ (2006). 이혼상담 법제화를 위한 제2회 전문상담전문가 교

육대회자료집-초급·중급.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_____ (2006). 이혼상담 법제화를 위한 제2회 전문상담전문가 교

육대회자료집-고급.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상담센터.(2006).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8). 가정폭력 실태조사 ,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조사방법
과 연구가 필요하다.. 2008년 4월 18일자 보도자료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 은(2003). 성인기 애착측정의 배우자 애착측정활용에서의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1호, 13~24

Alan Kemp.(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Berry, J. & E. Worthington(2001). forgiveness, Relationship Quality, Stress
While Imagining Relationship Event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47-455.

Bograd Michele (1988).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An Introduction*,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ed. Kersti Yllo and Michele
Bograd,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

Bohannon, P.(1970). *Divorce and after*. New York: Doubleday.

Bowker.(1983). Beating Wife-Beating, (Lexington, MA 1983):K. Ferraro. How
Women Experience Battering: The Process of Victimization, **Social Probl
ems**, 80, pp. 325-337: A. Okun.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99-125

- Cohen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hou, K. & Chi, I.(2001).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as Mediators or Moder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2, 155-171.
- Dibble, U. G. & Straus, M.A. (199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Dobash, R. & Dobash, R.(1979). *Violence against Wives*. New York: Free Press.
- Dotton, Marry A.(1992). *Empowering and Healing the Battered Women*,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Gelles, R. J.(1976).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59-668.
- Gelles, R. J.(1998). Violence in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0), 873-885.
- Germain, C.(1991).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lbert, L. & Walker, R.(2001). *Contemporary Marriage*. In *The New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Men*, edited by G. Brooks and G. Glenn. San Francisco: Jossey-Bass.
- Goldfried, Marvin R. Padawer, Wendy and Robins, Clive, (2000). Social Anxiety and the semantic Structure of Hetero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1)
- Heller, K. & Swindle, R. W.(1983). Social network,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D. Felner, L. A. JASON, J. N. Moritsugu & S. S. Farber (Eds.), *Preventive psychology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 New York: Pergmon Press.
- Hotaling, G. T. & Sugarman, D. B.(1986). *An analysis of risk makera o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01-124.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Wesley Pub, 31.
- Janis, I. L.(1982). Decisionmaking under str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Free Press.
- Janis, L. & Mann, L.(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Kahn, T.(1990), *Pathways*. A guided workbook for youth beginning treatment, Brandon: *The safer society press*, 77-7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 Litwak & Szeleny(2005). *Mediating divorce: A step-by-step manual*. SanFrancisco, CA: Jossey-Bass
- Merrit-Gray & J. Wuest,(1995). Counteracting Abuse and Breaking Free: The Process of Leaving Revealed through Women's Voices, *Health Care for Women Inernational*, 16, pp. 399-412
- Martin, D. (2002).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Texas*
- Moss, R. H. & Bilings, A. G.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Moll.(1992). Helpless in Battered Women, *Department of Psychology,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pp. 42-45.
- Okun. A. Battered(1998). *Women Who Leave: Model of Factors Involved in*

- the Separation Process*, The University of Michigan, HD, pp. 82-10
- Rhodes.(1992). *Contemporary Marriage. In the New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Men*, edited by G. Brooks and G. Glenn. New York, NY: Doubleday/ Anchor.
- Richard H. Mattson et al .,(2003). Proposed horticultural therapy standards of practice, *Journal of Therapeutic Horticulture* Vol. 7; 41-48,
- Roberts. J, (2002) *Duration and Severity of Women Battering*, in handbook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Strategies.
- Rosewater L. B.(1988). Battered or Schizophrenic? Psychological Tests Can't Tell, In K. Yollo & M. Bograd(ed), *Feminist Perspective on Wife Abuse*, CA: Sage,
- Sarason, B. R.,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hainess, N.(1979). Vulnerability to Violence : Masochism as Process, *American J of Psychotherapy*, 33.
- Silver. R. L. & Wortman. C. B.(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 In J. Garber and M. E. P. Seligman.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SM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 97.
- Snell, J. E, Rosenwald, R. J. & Robey, A.(1964). *The wife beater's wife: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arch. gen. psychiat, 11, p.107-112
- Sprenkle, D. H.(1994). The clinical practice of divorce therapy. In M. Textor (Ed.), *The divorce and divorce therapy handbook*.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Violence behind Closed*

-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NY: Doubleday/Anchor.
- Strub. & L. Barbour(1984). Factors Related to the Decision to Leave and Abusiv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984, pp. 873-844 : A. Okun. Battered Women Who Leav: An Explanatory of Factors Involved in the Separation Process, (i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HD, 1998).
- Thoits peggy A.(1995).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y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3
- Turner, N. W.(1980). Divorce in mid-life: Clinic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W. Norman & Scaramella(Eds.), *Mid-life: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New York: Brunner/Mazel.
- Walker, L.(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 Row.
- Walker, L.(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ether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Abstract>

Relations between damages of women victims from home violence and social support

Go Eun Bi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post graduation of education in Jeju University

Tutor professor, Park Tae Su

The goal of this study²⁾ is to clarify what relations between damage of woman's victim of home violence and social support, and what differences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support for woman victim and damage and social support depending on marital relations and source of social support exist. For these purposes, following subjects are assigned.

First, What relations between damage of woman victim from home violence and social supports exist?

Second, what are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s for woman victims depending on source of social supports?

Third, what are damage of woman victims from home violence and social support depending on marital relationship?

In order to solve these subjects, survey by questionnaire is carried out for 108 of woman's victim from home violence in Jeju province.

For measuring tool of damages, damage level scale (CTS2) which was developed by Straus (1996) and revised and custom-tailored to our country by Son Jung Young (1997) is used, and scale developed by Park Ji Won (1985)

2) This paper is for master's degree, and it is submitted on Aug, 2009 to the committee of post.

is used for measuring social supports.

With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d percentage is calculated within level of significance of $p < 0.05$, $p < 0.01$ and $p < 0.001$ to address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argeted women, and t-verification and F verification are carried out to clarify damage of woman victim from home violence and social support, and correlation analysis for checking correlations between damages and social support is carried out, and verification is carried by one-way ANOVA in order to differences between damage level and social support depending on marital relations and source of social support. As the result, following conclusions are acquired. First, based damages of targeted women and social support, they are reported to experience weak violences, and 43.8% of those women are reported to experience severe violences with average of 3-5 times a week.

Level of social support is supported to the extent of 'almost yes' with average

3.70 (standard deviation .51) based on total score of 5 points, and it is reported that they recognize social supports are provided in order of evaluation support > informative support > emotional support > physical supports.

Second, as result of analyzing basic differences between social support for woman victims and nothing for them, emotional supports has no difference, and informative supports appeared by sequence of society > family > friend > neighbors, and physical support appeared by sequence of family > friend > society > neighbor.

As the result, woman victim felt that neighbors hardly plays its role as a source of social supports, and in terms of overall social supports, it appeared that supports are provided as sequence of family > society > friend > neighbor.

Third, as the result of variable analysis for damage of woman victim depending on marital relations, those who are under divorce process are reported to think that they suffered with higher physical damages compared with other women indicating that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for determine marital

relationship.

Fourth, as the result of checking level of social supports depending on marital relations, it is reported that those who are under divorce process think that physical and informative supports are higher than other groups indicating that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for determine marital relationship.

To summarizing these result, the higher level woman victim from home violence have, the less social supports are, and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in physical damages depending on marital relationships, and social roles are increasing following that of family as source of social supports. These means that if education for preventing home violence and building infrastructure by government policies are carried out, those can be used for useful resources to determine desired marital relations and preventing violences.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고은비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사회적 지지망과 그 기능이 부부관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갈등관리척도, 사회적 지지척도, 부부관계유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응답결과는 귀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지에 응답 해 주신 자료는 귀하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하겠습니다.

귀하의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고은비

본 조사의 결과를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 문항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귀하가 경험한 내용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1년 동안						1년전 발생	없음
		1회	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		
1	남편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욕을 했다.								
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던졌다.								
3	나의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4	부부싸움으로 인해 나는 빠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5	남편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나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6	나를 세게 밀었다.								
7	내가 싫어하는 채위의 성행위(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를 하기 위해 나에게 무력(때리기, 붙잡기, 흉기사용하기 등)을 사용하였다.								
8	나에게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였다.								
9	다툼중에 남편이 머리를 때려 내가 기절하였다.								
10	남편이 나에게 동충하다거나 못생겼다고 말했다.								
11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를 쳤다.								
12	나의 소유물을 부수었다.								
13	부부싸움에서 다쳐서 나는 병원에 갔다.								
14	남편이 나의 목을 졸랐다.								
15	나에게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								
16	나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부쳤다.								
17	부부싸움 때문에 나는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갈 정도였지만 가지 않았다.								
18	손으로 내 몸을 때렸다.								
19	나를 꼭 움켜 잡았다.								

20	성관계를 갖기 위해 나에게 무력(때리기, 붙잡기, 흥기 사용하기 등)을 사용하였다.								
21	남편은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								
22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23	나의 뺨을 때렸다.								
24	부부싸움으로 내 뼈가 부러졌다.								
25	내가 싫어하는 체위의 성행위(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를 하기 위해 나를 위협했다.								
26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27	나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했다.								
28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겠다고 위협했다.								
29	부부싸움으로 나는 그 다음날까지 몹이 아팠다.								
30	나를 발로 찼다.								
31	성관계를 갖기 위해 나를 위협했다.								

2. 다음은 귀하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가족, 친지, 친구, 이웃,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느낌과 가장 비슷한 한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3	그들과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4	그들은 내가 마음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5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6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8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					
9	그들은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돕는다.					
<p>이러한(1-9번) 도움을 당신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1. 가족이나 친지() 2. 친구 () 3. 이웃 () 4.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사회() 5. 기 타 ()</p>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11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12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나를 도와준다.					
13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14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15	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다.					
16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준다.					
<p>이러한(10-16번) 도움을 가장 많이 얻는 한 곳은 어디인가? 1. 가족이나 친지() 2. 친구 () 3. 이웃 () 4.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사회() 5. 기 타 ()</p>						

4. 전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하가 학대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기관
 이나 사람 중에 도움이 많이 된 것을 아래에서 모두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가족이나 친지 ② 친구 ③ 이웃 ④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사회

5.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나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현재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교육정도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이상()
직업유무	1) 있다.() 2) 없다.()
결혼기간	1) 5년이하() 2) 10년이하() 3) 15년이하() 4) 20년이하() 5) 30년이하() 6) 30년이상()
경제정도 (월수입)	1) 100만원 이하 () 2) 200만원 이하 () 3) 300만원 이하 () 4) 400만원 이하 () 5) 500만원 이하 () 6) 500만원 이상 ()

**오랜 시간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